

세상에는 사실과 진실 말고도 진리가 존재한다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와 사이언스북스가 공동기획한 '불교와 과학의 대화' 2번째 강연이 8월 11일 봉은사 봉은선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강연에는 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소장 종림 스님이 '불교인은 과학을 어떻게 보는가?'를,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가 '과학과 불교는 만날 수 있는가?'를 주제 발표했다.

행사에는 종교와 과학, 불교와 과학 대한 담론이 이어지는 행사가 9월 1일, 9월 8일 목요일 저녁 7시 봉은사 봉은선원에서 이어진다.

정리=천진영 기자



“**종림 스님**
인간은 진리를 추구해
진리는 종교와 과학을 넘어
사실과 진실의 교차점
존재론에 빠지면 진리 못찾아

“**우희종 교수**
근대 과학은 폭력성 지녀
현대 사회가 극복하려면
과학도 너와 나 둘이 아닌
관계론적 시각 필요



■ 고려대장경연구소 연구소장 종림 스님 '불교인은 과학을 어떻게 보는가?'

불교는 종교인가 철학인가?

과학의 시대 이전에도 불교를 종교로 볼지 철학으로 볼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왔습니다. 혹자는 불교를 종교 이전에 '철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분명히 종교적 형태와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를 철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반면에 불교를 종교로만 이해하려는 시각도 불교를 너무 좁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창조주, 다시 말해 '신(神)'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신이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신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인간은 신이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신에게 묻거나 접근할 수 없는 수동적인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왜 인간이 신에 의지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도 '초월성'이라는 것이 있지만 '신'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불교가 종교로 발전하면서 깨달음 보다는 '신앙'에 무게를 뒀습니다. 불교에도 '신'과 같은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신앙은 감성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불교는 종교다

불교 내에서도 각자의 입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같은 부처님 말씀이라도 자신의 위치와 입장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불교에는 어려운 용어가 많습니다. 분명히 정의할 수 없는 단어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부할 열심만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깨달은 것과 같은 깨달음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각자 자기 자신의 깨달음입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가

장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런 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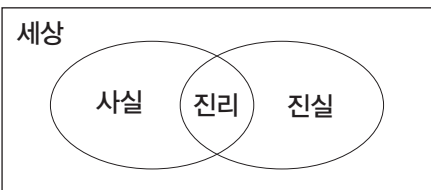
불교는 철학이기도하다

우리는 아직도 서당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편입하지 못하고 뒤쳐졌음을 시인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동양철학이라든 후유 철학을 말합니다. 불교는 본건적 경전 연구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불교가 빨리 동양 철학의 한 분야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철학으로서 같은 논의의 대상이 되려면 기본 개념 정리가 시급합니다. 우선, 학문적 용어와 현저하게 다른 용어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의 개념을 다른 언어로 말한다면 '논의'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불교 용어들의 현대적 개념정리가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끼리만 이해하는 철학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가 철학으로서의 위치를 인정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같은 언어'로서 불교를 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물(物) 종교는 심(心)

과학은 물체를 대상으로 하고 종교는 마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학이 중시하는 것이 실제, 개념, 논리라면 종교는 인간의 정신,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학이 이 세상에 실제 하지 않는 정신과 마음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돼 제대로 된 평가나 연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는 현실의 삶 말고도 '저 위에 어떤 것'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과학이 들어대는 사실적 증거의 잣대로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데서 출발해 발전해왔습니다. 종교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면 좀 더 폭 넓은 시각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과학은 반성해야 한다

과학은 만물을 대할 때 실체적인 개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있다', '없다'라는 말은 언어가 가진 한계일 뿐입니다. 과학의 발전도 만유인력의 발견처럼 사고가 떨어지는 실체적인 현상을 사건이 아닌 상상력을 통해 들여다봤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입니다. 사건을 눈으로 확인되는 실체적인 개념으로만 분석하려 든다면 과학의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삶을 산다는 것은 사진기로 찍어 증거를 남기는 것 같은 사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 정신·마음에 해당하는 종교를 이해하려고 할 때 존재론적·실체론적 시각에 갇혀 있으면 제대로 알 수도 이해 할 수도 없습니다.

중관의 입장

중관(中觀)을 '양쪽에 치우치지 않은 가운데'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관은 고정적인 실체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상대적인 속성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연기(緣起)가 시간적 개념이면 공(空)은 공간에 중점을 둔 개념입니다. 즉 사물이 존재한다(有)는 판단,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無)는 판단 모두 연기·공

의 입장에서는 부정됩니다. 불교는 이런 존재론적인 유무의 견해를 끝없이 부정해 가는 데에 잠긴 중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이 '있다·없다'에 존재의 근거를 둔다면 본질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종교와 과학을 넘는 '진리'

지난 시간, 사실과 진실에 대해 장대희 교수와 우희종 교수 두 과학자가 상반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사실과 진실은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념적인 범주에 있습니다. 또 현재에는 거짓된 진실과 사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과 진실 외에 진리라는 범주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리는 인간의 삶에 이로우면서 동시에 사실이고 진실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과학과 종교를 논하는 이유도 이 진리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의 방법 차이일 뿐 진리를 추구하는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림 스님은...

1944년 경남 함양 출생. 동국대 인도철학과 졸업. 1972년 지관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사 도서관장, 월간(해인) 편집장, 일본 하나조노 대학 국제선학연구소 연구원, 대흥사 선원장, 세계전자불전협의회 공동의장, 2006 한국불교학결집대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1992년 고려대 장경연구소를 설립해 대장경을 디지털화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저서로는 <종림잡설-망량의 노래> 등이 있다.

■ 서울대수의학과 우희종 교수 '과학과 불교는 만날 수 있는가?'

문화로서의 현대 과학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림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그려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풍경을 찍은 사진보다 화가의 시각, 화가의 눈을 통한 이 사실적이지 않은 그림이 인간에게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종교도 이와 같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이사무애

지난 시간에 과학은 사물 이치를 밝힌 지식 체계라고 간단하게 정의 했고 종교는 진실,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과학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발전하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지식과 지혜가 이분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로 인지했는지의 차이입니다. 표현하는 언어가 다를 뿐, 그 둘은 둘이 아닙니다. 즉, 이(理)와 사(事)가 분리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무애(理事無礙)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불교, 삶의 문제로 접근해야

불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사사무애(事事無礙)입니다. 삶 속에서 이(理)와 사(事)가 통합된 삶의 모습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불교적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현실 속의 나에서 벗어나 또 다른 나의 근원의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론적 사고는 나 역시 너와의 관계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결국 너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에 생령 존중 사상이 나오게 되고 비폭력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근대 과학과 자본주의의 폭력성

과학이 편리한 잉여 가치를 제공해 자본주의의 도구화가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진리는 과학입니다'라는 광고에서 느낄 수 있듯이 과학은 막연한 신뢰를 주는 종교가 돼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던지는 의문에 대해 열려있으면서 발전해야 할 과학이 닫힌 것입니다. 이는 지식의 권력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과 자본주의의 만남이 우리를 끊임없는 욕망과 갈망의 세계에 살게합니다. 이것은 과학이 주는 폭력입니다.

불교적 비폭력은 무엇인가

연기적 관계를 훼손시키는 모든 일을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폭력은 강자가 약자에게 휘두르는 것이라고 하지만 체념, 무관심도 폭력입니다. 바람직한 관계가 끊어지고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년원에 자원봉사를 가면 "저는 억울해요. 그냥 옆에 서 있었을 뿐이에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리는 1명뿐 아니라 가만히 서있지만 한 9명의 아이들도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법적인 처벌도 내려집니다.

종합하면, 과학이 주는 폭력에 대처하는 불교적 삶의 자세란 '관계를 바로 잡는 삶의 자세'입니다.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비폭력이다. 또 다른 모습의 수행인 것입니다.

大관음사 행사모집

1. 만 50세 미만, 남자, 출가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수행위주의 교육
3.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4.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5.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사생활 함.

문의 : 053-474-8228
010-2488-8228

도심사찰 낚을 시설을 갖춘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제1기 김해대학교 평생교육원 불교학과 학인모집

개강 : 2011년 9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 김해대학교 102호 강의실

- 과목 : 1. 범음범패학과 (교수: 민지효 스님)
2. 불교철학과 (교수: 법장 스님)
3. 가야역사학 (교수: 태연 스님)
4. 다도(茶)학 (교수: 김명자 님)
5. 가요(찬불) (교수: 이현주 님)

범음범패학과 교육내용 * 유네스코 등재된 소리

■ 일반인 : 예절법, 기도법, 참선법, 천수경, 반야심경 법성계, 칠정례, 거불, 삼귀의, 사홍서원 범수해례, 칠연사구성, 짓소리.

■ 스님 :

기본과정 - 사물, 범고, 도량성, 각단예불
중급과정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요잡바라, 나비춤(도량계, 대계)
고급과정 - 종송(조석종송), 49제의식, 방생의식, 상용영반, 종사영반, 괘불이운, 종사이운

* 위 모든 과목을 모두 공부할 수 있습니다 *

■ 수강료 : 매월 10만원 또는 1학기 50만원 (교재비 별도)

■ 범패 문의 : 교수 민지효 스님 010-4466-3575

■ 담임 교수 : 법장 스님 011-829-9120

김해대학교 평생교육원 담당자 055)320-1717
경남 김해시 삼방동 산 77-9번지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함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작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